

안두진-압도적인 강렬함으로 쇄도하는 기표들

이선영(미술평론가)

안두진은 그가 '이마퀴크'라고 이름붙인 이미지의 최소단위를 조합하거나 해체함으로써 낯선 대지를 창조한다. 분절된 단위들이 예측할 수 없는 방식으로 주어진 공간을 점유함으로써, 그것들이 뒤덮은 표면은 기이한 아우라를 발산한다. 장식 물딩이 있는 고풍스런 건물의 높은 천정에 붙어있거나 황금빛 테두리 안의 형상들은 바로크 시대의 종교화 같은 장중한 구성양식을 가진다. 그러나 단청이나 탕화같이 서로 부딪히면서 강하게 튀는 색배열은 동서양의 범종교적인 도상의 집합체같은 양상이 있다. 여기에 유사 종교적인 하위문화의 도상들도 변형된 채 결합한다. 혼성 모방된 기표들은 이리저리 몰려다니며 아우성치는 듯한데, 여기에 깔린 강렬한 정서는 종교적 열락이나 '히스테리성 송고'(F. 제임슨)와 관련된다.

그의 작품은 모든 기준들이 뒤섞이고 변형된다는 점에서 가히 분열증적인 면모를 보인다. 분열증을 병이 아니라 긍정적인 가치로 평가한 들뢰즈는, 정신분열이 삶의 원지 알 수 없는 어떤 접촉을 상실하기는 커녕, 오히려 현실의 중심부에, 현실적인 것의 생산과 일체를 이루는 강도있는 점에 자리잡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이들에게는 도저히 견딜 수 없을 정도로 순수한 상태의 강도있는 양들의 경험이 있다. 쇄도하는 물리적, 심리적 흔적들은 흩어지지 않고 응축되면서 일련의 상징적 우주를 형성한다. 작품 [최후의 경기]는 건축이나 건축의 부속장식을 떠오르게 하는 틀거리를 가지고 있다. 관객으로 하여금 고개를 들어 하늘을 향하게 하는 천정화 [열락]은 비록 캔버스 천에 따로 그려져 부착한 것이긴 하지만 건축과의 일체를 꾀한다.

2006년 브레인 팩토리에서의 전시도 그랬지만, 안두진의 작품은 대성당이나 서낭당같이 특정한 장소와 일체화되면서 총체적인 효과를 지향한다. 아마퀴크로 뒤덮인 성스러운 건물을 축조하기도 했다. 이전 시대의 묵직한 관념성과는 무관하지만, 그의 작품에 나타나는 발랄한 감각성은 초감성적 세계에 의해 구성되고 있는 듯하다. 그런 면에서 그의 작품은 미술의 근원이기도 한 종교와 닿아있다. 크리스테바가 [사랑의 정신분석]에서 지적하듯, 종교란 현실과는 거의 무관하지만, 그것을 만든 사람들의 욕망의 현실성을 정확하게 표출하는 하나의 비현실적 구축물이다. 가면과 위장술, 그리고 유희로 만들어진 전적으로 비현실적이고 환상적인 세계는 홀로 타자와 대면한 존재 조건의 간격을 뛰어넘어, 상상적인 완전성과 영속성을 추구하게 한다. 그것은 주체로 하여금 자신의 일관성을 재구성하도록 도와줄 수 있다.

그러나 주체의 일관성이란 시시각각 위협받는다. 이러한 불안정성은 현상에 안주하며 살아가는 평범한 이들에게는 공포이지만 새로운 세계를 추구하는 모험가들에게는 열락일 수 있다. 안두진의 작품에서 이합집산하는 현란한 기표들은 결코 만족되지 않을 욕망이나 무의식처럼 끝없이 배회하고 있다. 주체는 수많은 기원을 가지는 기표들의 폭포 아래에서 매순간 재구성되는 과정성을 가지며, 작품은 주체 내부의 타자가 돌출하는 장이 된다. 의식되지도 규제할 수도 없는 이질성이 출몰하는 예술작품은 주체성의 한계를 시험하는 무대가 된다. 여기에서 주체는 매순간 구성되고 해체되면서 결코 메워지지 않을 공백을 드러낸다. 그러나 이러한 공백들은 주체의 파산이 아니라, 주체의 갱신을 복돋우며 새로운 대지를 찾아나서게 하는 보이지 않는 중심이 되고 있다.